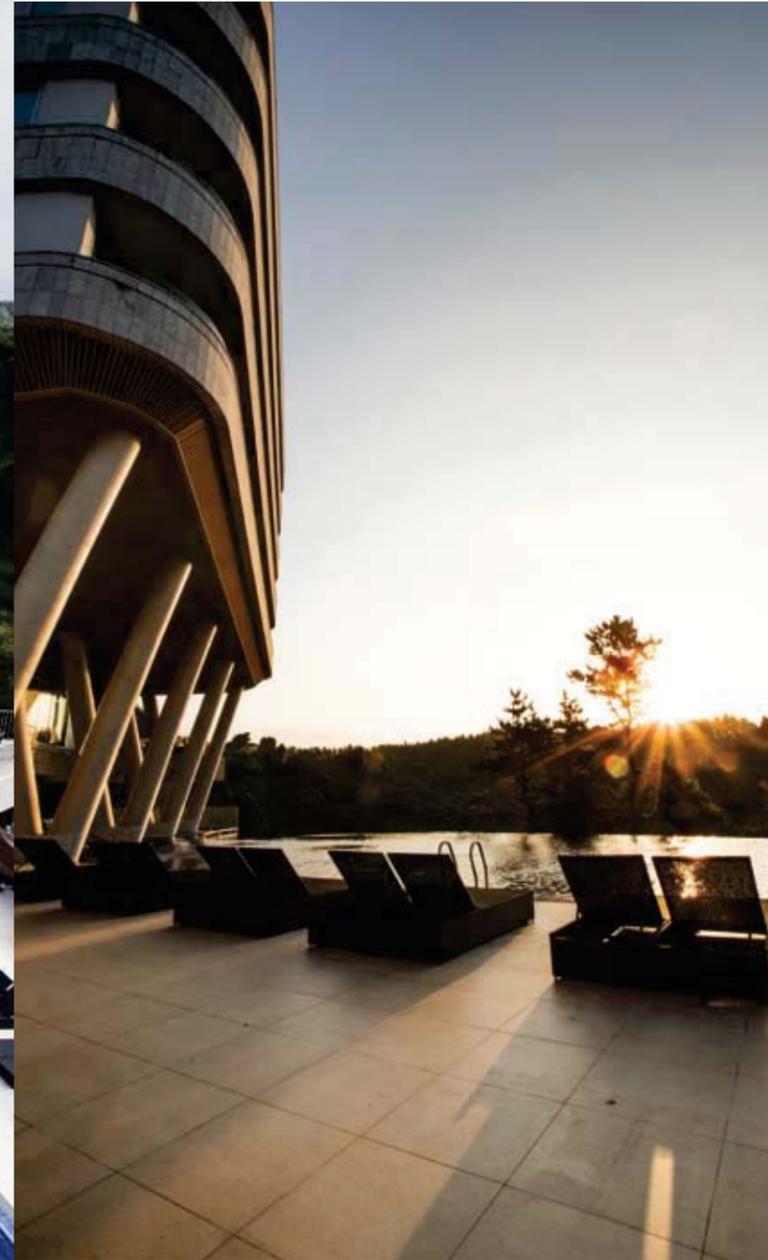


제주 숲에서의 하루

180만 년 동안 사람의 손이 닿지 않았던 원시림에 히든 클리프 호텔 앤 네이처가 문을 열었다. 제주의 숲 속에서 뜻밖의 위안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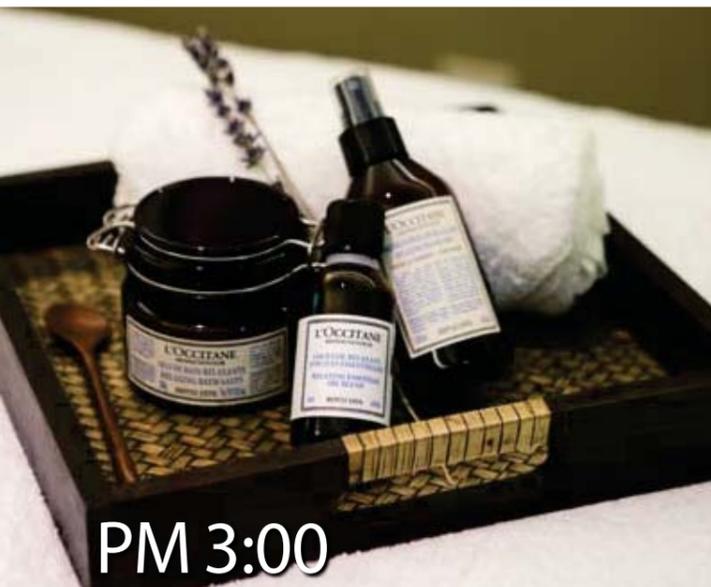
히든 클리프 호텔 앤 네이처의 인피니티 풀에선 원시림이 보인다.



버스는 빠르게 달려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표지판을 지나쳤다. 이내 호텔들이 모여 있는 바다를 등지고 산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대체 이런 곳에 호텔이 존재할까 싶을 정도로 좁은 길을 오르자마자 숲으로 둘러싸인 건물 한 채가 보인다. 지난 7월 문을 연 히든 클리프 호텔 앤 네이처(이하 '히든 클리프')는 중문관광단지 뒤편에 위치한 예래생태마을에 자리했다. "자연이 숨긴 그곳에", 히든 클리프 홈페이지에서 보았던 문구와 딱 맞아떨어지는 풍경이다. 그게 이곳을 선택한 이유였다. 서울에서 연일 35도가 넘는 열기에 만사가 무기력해졌다. 휴식을 위한 여행이 필요했다. 외딴 자연 속에 파묻혀 있되, 도시 생활자도 불편하지 않은 시설을 갖춘 곳을 찾았다. 마침 히든 클리프 오픈 소식을 들었고, 곧장 예약했다. 그렇게 히든 클리프에 왔다. 호텔 앞에 내리자 돌멩이처럼 오돌토돌한 결이 있는 외벽이 눈에 들어왔다. 호텔 앞에는 예래천이 보이고, 그 뒤로는 멀리 중문관광단지에 뻗뻗하게 모여 있는 호텔과 리조트 지붕이 이어진다. 그런 관광지의 소란스러움 대신 히든 클리프에서는 숲이 주는 고요함이 느껴진다. 자연으로 향하는 긴 하루가 시작되었다.



객실 객실에 들어서자 마음이 차분해진다. 나뭇결이 살아 있는 원목 가구며 하얀색과 베이지색 패브릭으로 꾸며진 인테리어는 낮선 방 특유의 이질감이 없다. 히든 클리프는 스위트룸 23개와 디럭스 룸 227개로 이뤄져 있는데 모두 테라스가 있다. 3개의 wing으로 이뤄진 건물 구조는 위치에 따라 각기 다른 제주의 풍광을 보여준다. 오름, 바다, 원시림의 폭포 등이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진다. 특히 폭포가 보이는 방에서는 밤사이 시원하게 쏟아져 내리는 영포폭포의 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드는 경험을 할 수 있다. 객실에 있는 원목 전자시계는 꼭 활용해야 할 것 중 하나다. 스마트폰 무선 충전(안드로이드 전용)과 블루투스 스피커 기능을 함께 지녔다. 나른한 음악을 틀어둔 채 소파에 앉아 웰컴 디저트인 제주 감귤과 천혜향 마들렌을 먹었다. 냉장고 안에는 생수 2병과 함께 여행 중 지친 피부를 달랠 마스크 팩이 들어 있다. 소박하지만 세심한 서비스가 느껴진다. 그리고 또 하나. 전 객실의 욕실에는 룩시팡 어메니티를 비치했다.



PM 3:00

PM 6:00

PM 9:00

AM 8:00

릴스파 바이 록시앙
 몸에 누적된 피로를 풀기 위해 호텔 1층의 릴스파 바이 록시앙을 찾았다. 제주의 유일한 록시앙 스파이자 리테일 숍이다. 록시앙 스파는 100퍼센트 핸드 마사지가 원칙으로, 프랑스의 전통적인 마사지법을 이수한 테라피스트가 손님을 맞는다. 얼굴과 전신, 부위별로 스파 메뉴가 나뉘며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릴스파에는 전 세계 어느 록시앙 스파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트리트먼트가 있다. 프랑스 드롬 지방의 작약꽃이 주원료인 제품을 사용한 피어니 릴랙싱과 피어니 서브라임 뷰티가 그것. 이 중 피어니 릴랙싱은 전신 마사지로 온몸의 뭉친 근육을 풀고자 하는 이들에게 추천한다. 스웨디시와 발리시 마사지를 적절하게 섞은 방식으로 테라피스트의 손힘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 건식 마사지와 달리 오일을 사용해 몸속 깊은 곳까지 건들면서도 터치는 부드럽다. 은은한 꽃 향기에 뭉뚱만 아니라 마음까지 편안해진다. 커를 룸을 포함해 4개의 트리트먼트 룸이 있으며, 온라인으로 미리 예약할 경우 10퍼센트 할인받을 수 있다.

그릴 & 바비온드
 히든 클리프의 가장 큰 매력은 제주 중문관광단지의 풍경을 오롯이 감상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호텔 옥상에 위치한 그릴 & 바비온드는 그 매력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공간이다. 야외 전망 데크에서는 180만 년 동안 사람이 찾지 않았던 예래동의 원시림과 비가 오면 쏟아지는 영도폭포, 오름이 한눈에 보인다. 이토록 근사한 풍경을 앞에 두고 이탈리아인 셰프가 제주 특산물로 만든 요리를 맛볼 수 있다. 한식이 아닌 이탈리아 요리로 변신한 제주의 신선한 해산물과 고기, 제철 채소 등은 색다른 미식의 세계를 연다. 관자, 새우, 전복을 바다 내음이 물씬 풍기는 해초젤리에 얹은 아뮤즈부터 그릴에 구워 특제 소스를 얹은 스테이크와 바닷가재구이, 단품 메뉴인 파스타와 피자까지 새롭게 변주한 제주 특산물을 경험할 수 있다. 밤이 되면 중문의 아름다운 야경을 바라보며 히든 클리프 시그니처 칵테일, 와인 등을 가볍게 즐길 수 있는 바로 변신한다. 투숙객이 아니더라도 제주 풍광을 보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다.

에디터 권이름 포토그래퍼 강신환 취재 협조 히든클리프 호텔 앤 바이어 www.hiddencliff.kr

인피니티 풀
 흔히 인피니티 풀은 바다의 수평선과 마주하고 있다. 그런데 원시림에 자리한 히든 클리프의 인피니티 풀은 지역적 특성을 살려 숲과 오름을 바라보고 있다. 47미터의 길쭉한 풀장 앞에는 일부러 가치를 쳐내지 않은 사철나무가 우뚝 솟아 있다. 풀장에서 주위를 둘러보면 마치 숲 속 언덕에 들어온 듯한 기분이 든다. 숲이 뿜어내는 강렬한 초록빛을 볼 수 있는 한낮도 좋지만 달빛이 은은하게 쏟아지는 한밤의 고즈넉한 풀장은 로맨틱한 분위기가 가득하다. 색색의 조명이 밝혀주는 풀장은 들어가기 좋을 정도로 미지근한 온도를 유지해 산속의 쌀쌀한 바람에도 얼마든지 수영을 즐길 수 있다. 새끼말개 어둠이 드리운 숲에서는 연신 풀벌레 우는 소리와 폭포수 쏟아지는 소리가 들려온다. 건식 사우나와 자쿠지 수영장도 자리해 잠들기 전 피로를 풀기에 좋다. 오후 10시까지 칵츄 주스, 칵테일, 맥주 등의 마실거리와 햄버거, 샌드위치 같은 간단한 먹거리를 판매한다. 종종 DJ를 초청해 흥겨운 풀 파티장으로 변신하기도 한다.

파노라마
 단장을 잔 다음 날 아침, 식사를 위해 호텔 지하 1층에 자리한 레스토랑 파노라마로 향했다. 이름처럼 제주의 비경이 270도 파노라마로 보인다. 호텔의 자랑인 인피니티 풀을 중심으로 오름과 숲이 창문 너머 넓게 펼쳐진다. 숲이 보이는 창가에 앉아 칵츄 오렌지주스로 입맛을 돋운다. 두툼한 고깃덩이를 훈연해 만든 수제 햄, 제철 해산물 요리, 주문과 동시에 눈앞에서 만들어주는 쌀국수, 여러 가지 과일 식초 등 정갈한 요리가 준비된다. 가짓수를 내세우기보다는 음식 하나라도 일품요리처럼 제대로 된 맛을 내겠다는 것이 파노라마의 생각이다. 식사가 끝나고 바로 산책로로 나섰다. 파노라마의 야외 테라스는 호텔 주변으로 난 산책로와 이어진다. 원시림을 가꾸어 낸 길로, 걷기에 부담스럽지 않다. 아직은 완벽하게 완성되지 않아 길이가 짧은 편이나, 곧 완벽하게 산책로가 완성되면 원시림 트레킹 같은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다. 한국반딧불이연구회 제호 반딧불이 보호지역으로 한밤에는 별처럼 반짝이는 반딧불이 무리를 볼 수 있다. ①